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단기선교: 바누와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신청서: 교회 로비).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 12월 7일(수)
선교지역: 바누와트 삼마지역. 대상: 칼리지 Form 5 - 장년
회비: 1100불(개인) 훈련: 8주 (개강 10.6 매주 목)
- ② 알림: 각 공동체장들은 개역개정 성경, 찬송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성도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4일까지, 견본 참조).
- ③ 예배: 다음 주 예배 설교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 ④ 장터: 이번 주 갈보리 장터 품목은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날권 판매).
- ⑤ 감사: 탁구대회에 수고하신 성도와 협조하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 ⑥ 휴무: 김영길 장로 호주 이주로 시무 장로에서 휴무합니다.
- ⑦ 임명: 윤형권 집사를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 ⑧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⑨ 월례회: 2남, 3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집사지역)
- ▷ 중국: 김강한 목사 (탈북자지역)
- ▷ NIBC (한동대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9월 교회일지

미니 체육대회:

9월 10일 (토요일)

성찬주일:

9월 25일 (주일)

해외 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9월 29일 (목요일)

교우 소식

개업: 박병민 집사(이기중권사) 마쯔스시 - New Lynn Mall Food Court (827-2714)
이전: 이순옥 집사 Boutique Citi Flowers - 120' Connell St, City (309-7949)
정현자 집사 (오지연 성도) Rayhue Studio - 13 Burnside Court Rosedale, Albany (444-4548)

9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 안내	주방 봉사
4일	고성일	심창진	박혜숙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1일	김영길	방명아	박후임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8일	박덕철	원미경	손조훈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5일	박병민	최장한	정옥자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항암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기섭 형제의 당뇨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도록, 수술 후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 되도록 (김경수 집사 외)
2. 비자 문제와 직장, 직업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3.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학생들을 섬기도록
4. 바누와트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가 관심을 갖고 기도로 협력하며 준비와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한인 교회들이 뉴질랜드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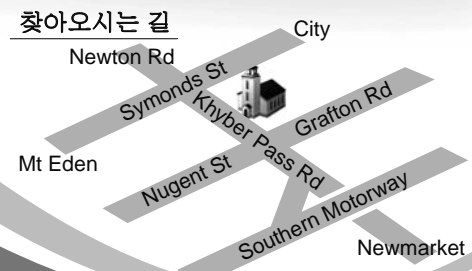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9월 11일

주보 13권 37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고린도전서 6:19-20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43장	다함께
*성서교독	57. 시편 130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79장	다함께
대표기도	김영길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23-36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베드로의 설교 2	이태한목사
찬송	183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특송	김영길장로 가정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다음주 기도: 박덕철집사	9월 25일: 박병민집사
건축헌금	지난주 헌금: \$919.00	총계: \$599,296.19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방명아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1:19-26	인도자
설교	그리스도인이라!	심창진목사
찬송	비전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원미경집사

성서교독 57.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갈보리 칼럼

추석의 의미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추석은 신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가배'라는 말이 변하여 '가위'가 되었다고 한다. 추석이라는 말은 <예기(禮記)>에 '춘조월 추석월'이라 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고 이 날은 설날, 단오절과 함께 우리나라 삼대 명절의 하나이며 1년중 달이 가장 크고 밝은날입니다. 가배는 햅쌀로 떡을 빻어 차례를 올리는 풍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니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감사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추수감사절'과도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 입는 시기로서 이때 입는 새옷을 추석빔이라고 합니다.

■ 추석의 관한 추억들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 특히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추석이 다가오면 벽에 있는 달력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어머니가 십오리길 장에 가서서 추석빔을 사오시고 각종 맛난 음식들을 맛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리땡바지(골텐바지)를 처음으로 입어봤고 여름옷을 벗고 긴팔인 독고리(윗도리)를 입어 볼 수 있었는데 새 옷에서 나는 냄새마저 좋아 펄쩍 펄쩍 뛰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추석 전 장이 열리는 날은 대목장이라 하여 집집마다 이장을 봐야만 차례를 지내게 되므로 대목장터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릴때 한번 따라갔던 장터에서 어머니를 놓칠까봐 치마자락을 꼭 잡고 이리저리 사람을 피해다니며 열심히 따라다닌 기억이 있다. 장남이라 선택받아 따라갔지만 시장에서 특별히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도 존재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런데 추석빔으로 사주신 옷과 고무신은 다 헐렁하게 컸었다. 바지는 몇번 접어서야 입었으며 신발도 손가락 한 두마디 정도는 커서 잘 신고 다니지 않으면 벗겨지기 일쑤였다.

키가 자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철따라 사줄수 없기 때문이었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이유는 깨끗하게 입어서 동생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이유는 그때 제복들은 세탁하면 줄어드는 옷들이 많았기 때문인거 같다. 고무신 애긴데 장날이면 찢어지거나 구멍난 고무신 때우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쳐다본 기억도 있다. 운동화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신게 되었지만 초등학교때는 검정 고무신뿐이었다.

추석이면 설날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생활을 하던 동네 주민들과 친척들이 하나 둘 찾아오고 안부를 물었고 어른들께 문안도 드리곤 한다. 평소 잠이 많던 아이들도 추석날 아침에는 설레임으로 일찍 일어 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찍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나면 어머니께서 새 옷을 장롱에서 꺼내 주고 입으라고 하신다. 그리곤 얼굴이 흰하다느니 잘생겼다느니 큰 인물이 될거라는 덕담을 주시곤 다시 차례준비로 바빠지셨던 어머니의 손길... 시간이 지나고 차례상위에 음식들이 차려 진다. 추석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기름기 흐르는 음식들의 유혹은 정말 참기 어려워진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적어도 추석만큼은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 넉넉하고 마음이 푸근하였다. 또한 이렇게 사람들은 추석을 통해 묵은 앙금 같은 것을 털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재충전하기도 하고 하나됨에 대한 감사와 조상의 슬기를 배우며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며 가족애를 새롭게 했던 것 같다.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박후임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5:25-34	인도자
설교	치유의 시작	심창진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539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이규임권사
다음 수요기도: 손조훈집사